

## 대우받고 싶은 만큼만이라도

이원희 스테파노

인천성모병원 호스피스팀 자원봉사자

며칠 전 가족들과 함께 뮤지컬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를 보았습니다. 유다가 예수님을 대사제들에게 넘기기로 결심하게 되는 때로부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실 때까지의 수난을 그린 작품이지요. 예수님의 수난을 목상할 수 있는 좋은 계기의 하나가 될 수도 있을 듯합니다. 여러 장면 중에서도 저에게 가장 인상에 남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최후의 만찬 후 겿세마니 동산에 올라 하느님께 기도하는 장면을 들 수 있겠습니다.

이미 잘 아시는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서는 ‘공포와 번민에 싸여서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니...(마르코 14:3-34) “아버지, 나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다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소서...(마르코 14:36)”’ 라고 절규하십니다. 죽음을 앞둔 예수님의 모습이지요. 제가 궁금한 것은 과연 예수님을 공포와 번민에 빠지게 한 것은 무엇일까 하는 것과 마음이 괴로워서 죽을 지경에 이르게 하는 그 상태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이런 수난을 당하실 것과 곧 부활하시리라는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지요.

우리는 말씀 그대로 ‘죽음’을 늘 곁에 두고 사는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은 어떨까요? 이분들도 공포와 번민에 싸여 있고,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에 있지 않을까요? 감히 예수님과 인간을 비교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하지만 그 내용에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심리적으로는 유사한 점이 많은 것 아닐까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죽음을 바로 앞둔 그 순간에는 그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모습을 보여 주신 것은 아닐는지요. 물론 확실한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바로 하느님께 순명하여

모든 것을 하느님의 뜻에 맡긴 반면, 우리 인간들에 대해서는 전혀 확인된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항상 병원에 와서 환자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가장 큰 고민은 이분들을 한 분 한 분 어떻게 대우해 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마다의 삶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데 무엇을 어떻게 해드려야 할지 벽에 가로막히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벽에 부딪혀 보신 경험이 있으신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그냥 ‘내가 만약 환자의 입장이 된다면 봉사자들에게 어떤 대접을 기대할런지?’를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몸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서 모든 것을 경험하시고 마지막에는 하느님께 모든 사람을 용서해 달라 청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어찌면 굳이 겪지 않아도 될 인간을 체험하시면서 우리 곁에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모두가 그 분을 흠송하고 찬송하는 것은 아닐런지요. 죽는 순간 공포와 번민을 체험하십시오. 인간이 죽음 앞에서 느끼는 공포와 번민이 무엇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친근하게 느끼고 그분께 의지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언제나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먼저 베풀어주셨지요. “주의 기도”에도 솔선수범을 강조하시지요. “우리에게 잘못된 이를 우리가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 속담에도 있습니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그렇습니다. 내가 대우받고 싶으면 먼저 대우해 주십시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내가 대우받고 싶은 만큼만”이라도. 하지만 역시 가장 좋은 건 아무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이지요. 예수님처럼...